10.15686/fkl.2025..64.424 OPEN ACCESS

교차하는 억압을 가로지르는 맥락과 실천의 윤리

-캐럴 J. 애덤스·로리 그루언 편, 김보경·백종륜 역, 『에코페미니즘: 인간, 동물, 지구와 교차하는 페미니즘적 시선들』, 에디투스, 2024.

구자연
수원대학교 인성교양대학 객원교수

목차

1 들어가며
2 에코페미니즘의 역사를 쓴다는 것
3 ‘인류세’와 인간에 대해 질문하기
4 유비의 오류를 넘어 연대를 확장하는 교차성
5 실천적 담론으로서의 에코페미니즘

1 들어가며

마리아 미즈와 반다나 시바가 1993년에 함께 저술한『에코페미니즘』은 2000년에 한국에 번역되어 출간되었고 내가 주황색 표지의 그 책을 처음 읽은 것은 2006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06년 여름, 나는 학내 여성주의자 문화집단 '난리부르스'에서 〈작전명 적버선〉이라는 연극에 배우로 참여했다. 극단의 몇몇 구성원들이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에 연극 연습을 하는 도중 캠퍼스 내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동물의 사체가 포함되지 않은 메뉴를 찾아 헤매야 했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비건 메뉴가 제공되는 식당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급할 때에는 매점에서 김밥을 사와서 김밥 속에 들어 있는 햄을 하나하나 빼서 먹곤 했다. 은박 포장지 위로 빼놓은 작은 햄 조각들을 보면서 이미 햄이 되어 버린 죽은 동물들에 대해 생각했다. 우리가 이 햄 조각들을 우리의 입에 넣지 않는 이 실천이 이미 죽은 돼지에게 어떤 위로도 될 수 없다 해도 하나의 유의미한 애도가 될 수는 있을까? 여성주의 연극을 만들면서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저 멋진 언니들을 따라하는 것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천이 될 수 있을까? 페미니스트는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할까? 그때의 나는 이러한 궁금증들을 안고 마리아 미즈와 반다나 시바가 쓴『에코페미니즘』을 읽었지만, 그 때의 내 삶과 직결되는 충분한 답을 얻지는 못했던 것 같다.

거의 20년의 시차를 두고 한국에 도달한 같은 제목의 책『에코페미니즘: 인간, 동물, 지구와 교차하는 페미니즘적 시선들』은 위의 질문에 대한 풍부하고도 깊이 있는 논의들을 담고 있다.『육식의 성정치』와『인간도 짐승도 아닌: 동물해방과 함께 하는 페미니즘』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캐럴 J. 애덤스와 *Entangled Empathy*를 쓴 로리 그루언이 엮은 이 책은 스물두 명에 달하는 필자들의 글을 한데 모아 에코페미니즘의 이론을 개괄하면서 동시에 2000년대, 2010년대를 지나 2020년대에 이르러 더욱 풍요로운 논의들을 아우르게 된 에코페미니즘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

2014년 미국에서 출간된『에코페미니즘: 인간, 동물, 지구와 교차하는 페미니즘적 시선들』의 제1판은 에코페미니즘의 선구자 마티 킬(Marti Kheel, 1948-2011)의 죽음에 대한 집단적 애도로부터 기획되었다. 선배 에코페미니스트를 기

억하고 애도하는 편저자들의 마음은 초기 에코페미니즘의 활력을 기록하되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오해와 그로부터 촉발된 논쟁들을 차분하게 살펴보는 작업으로 이어진다. 한국문학 연구자인 김보경과 백종륜의 번역 작업을 경유해 2024년 한국에 소개된 이 책은 2021년 개정된 제2판의 작업물로,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다. 제1부의 표제는 '정동'이고, 제2부는 '맥락'에 관한 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판에서 추가된 제3부는 '기후'를 핵심어로 삼고 있다. 이 책의 이러한 구성은 '정동, 맥락, 기후'라는 세 키워드가 2020년대 현재 시점에서 에코페미니즘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동시에 핵심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의성을 반영한 형태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이 책의 구성방식은 비거니즘/흑인 페미니즘과 생태주의의 교차/동물해방과 여성해방의 문제/ 퀴어이론과 에코페미니즘의 교차 등 각 주제에 해당하는 글들을 연속적으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 각 부에 분산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에코페미니즘의 논의 가운데 특정 주제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문제의식을 벼리고자 하는 독자에게는 약간의 불편함과 아쉬움을 준다. 이 책의 가장 높은 지적 성취라 여겨지는 비거니즘에 대한 날카로우면서도 깊이 있는 논의들은 5장 「기쁨」(데보라 슬라이서, 제1부에 포함), 8장 「죽음을 직면하고 슬픔을 실천하기」(로리 그루언, 제1부에 포함), 9장 「동물 상호 간의 도덕적 갈등과 도덕적 보상」(캐런 S.에머먼, 제2부에 포함), 11장 「배려하는 식인자와 인간/인도적 축산업」(랄프 아캄포라, 제2부에 포함), 12장 「에코페미니즘과 비거니즘」(리처드 트와인, 제2부에 포함), 15장 「계집애 공포 대 동물 애호」(수전 프레이먼, 제3부에 포함), 17장 「동물들이 외친다」(피오나 프로빈-랩시, 제3부에 포함) 등에 전개되어 있다. 이 책을 번역한 백종륜의 논문 「데리다의 채식주의 비판과 에코페미니즘의 맥락적 채식주의 윤리」(『비평과 이론』 29권 2호, 2024.)에서는 위의 글들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며 보편주의, 전략적 채식주의 및 맥락적 채식주의 논의 등이 전개된 배경 및 맥락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어 이 책을 읽을 때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2 에코페미니즘의 역사를 쓴다는 것

이 책의 1장 「에코페미니즘의 기반」에서는 그레타 가드의 「에코페미니즘의 새

로운 방향: 더 페미니즘적인 생태비평을 위하여」를 인용함으로써 생태비평의 학문 영역에서 에코페미니즘의 논의가 누락되고 삭제되어온 경향을 문제 삼는다. "동일한 아이디어가 이후 비-페미니즘적 출처를 경유해 제시되었을 때에는 상찬"[1]되는 학문적 배제의 역사는 그리 낯선 풍경이 아니다. 흔히 현대의 동물보호 담론이 1975년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의 출간과 함께 발전되어 온 것으로 여겨지는 것 역시 그 이전에 활발히 생산되고 집적되어온 에코페미니즘의 논의들을 비가시화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19세기 말, 영국 여성들은 에코페미니즘의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사회에서 여성들의 위치가 결정되는 방식이 동물들의 위치가 결정되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1892년에 이미 이디스 워스(Edith Ward)는 헨리 솔트(Henry Salt)의 책 『동물의 권리』를 리뷰하면서, "동물에 대한 잔혹한 학대의 오랜 관행보다 아내를 폭행하는 잔인한 남성을 양산하는 요인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정의란 소나 양의 권리까지 보장하는 일"[2]이라고 주장했다.(41쪽)

이 책의 15장 역시 유사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데, 수잔 프레이먼은 「계집애 공포 대 동물 애호」라는 글을 통해 "데리다를 창시자(founding father)로 설정하는 경향"과 동물 연구를 젠더, 인종, 섹슈얼리티와 무관한 작업인 것처럼 범주화하려는 경향이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492쪽)을 지적한다. 캐럴 J. 애덤스, 조세핀 도노반, 브라이언 루크, 코니 살라몬, 마티 킬, 아드레 콜라드, 딘 커틴, 앨리스 워커, 데보라 슬라이서, 그레타 가드, 로리 그루언, 린다 버크, 캐런 워렌 등을 포함한 수많은 에코페미니스트들이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젠더와 동물성에 관한 뿌리 깊은 인본주의적 가정에 도전하는 기획에 착수"(505쪽)해 왔음에도 자크 데리다가 2002년에 발표한 「동물, 그러니까 나인 동물(계속)」만을 "**선별**"하여 "동물 연구의 탁원한 원천"으로 고평하는 캐리 울프의 작업은 젠더편향성을 띤다.(490쪽)

역사 속에서 여성들의 업적이 지워지고 온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는,

---

1 캐럴 J. 애덤스·로리 그루언 편, 김보경·백종륜 역, 『에코페미니즘: 인간, 동물, 지구와 교차하는 페미니즘적 시선들』, 에디투스, 2024, 76쪽. 이하 이 글에서 이 책을 인용할 경우 괄호 안에 쪽수만 표기한다. 강조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원저자의 것이다.

2 Edith Ward, "Review of Henry Salt, Animal Rights", *Shafts 1*, no.3, 1892.11.19, p.41.

그 자체로 부당하다는 차원을 넘어 그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역사 혹은 자연 현상에 대한 서술 자체가 왜곡되는 문제로 확장된다. 역사를 기록하는 권한과 자연을 관찰하여 서술하는 권한이 특정 부류에게 독점될 때 발생하는 이와 같은 문제는 이 책의 20장의 「경계를 전복하기」에서 재차 언급된다. 과학사 및 젠더사 연구자인 론다 쉬빙어(Londa Schiebinger)는 『자연의 몸: 근대 과학 형성에서의 젠더』에서 "동식물 과학 연구에 뿌리 깊게 반영되어 있는 시스이성애 규범을 폭로"(638쪽)한 바 있다. 이 책은 1600년대 말 유럽의 박물학자들이 이성애 부부관계 및 인간의 생식계 해부학 구조를 본떠 식물의 재생산체계를 재명명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했음을 지적하면서 자연을 묘사하는 일들이 대부분 남성이었다는 사실 역시 짚어낸다.

이처럼 이 책의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역사쓰기의 중요성은 개정판 서문에서 "우리는 항상 역사에 빚지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이 책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타임라인을 만들게 된 동기"(17쪽)라고 밝히고 있는 대목과도 연결된다. 이 책이 에코페미니즘의 구체적 담론들을 제시하는 것과 함께 책 본문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타임라인을 만들어 여성, 흑인, 유색인, 선주민, 노동자 및 비인간 동물의 해방을 위해 투쟁해온 이들의 역사를 꼼꼼하게 기입하여 아카이빙하고 있는 것[3] 역시 백인/중산층/이성애자/비장애인/남성 위주의 주류 역사로부터 너무나 쉽게 누락되어 왔던 변혁의 순간들을 역사 속에 재기입 하려

3 본서에는 "**기원전 11000-9000년**: 식량으로 이용된 최초의 동물인 양의 가축화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21쪽), "**기원전 6세기**: 살아 있는 피조물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것을 교리로 삼는 자이나교가 창시되었다."(23쪽)는 사실부터 "**2020년**: 자키야 이만 잭슨의 『인간 되기: 반흑인 세계에서의 물질과 의미』가 출간되었다."(589쪽), "**2021년**: 마니샤 덱카의 인간중심적 법질서에 대항하는 법적 존재로서의 동물들이 출간되었다."(591쪽)는 사실까지 상당수의 페이지에 에코페미니즘과 연결될 수 있는 변혁적 실천의 순간들이 연표처럼 작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1493년 콜럼버스의 제2차 원정을 통해 현재 북아메리카로 알려져 있는 장소에 소가 유입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 지역의 선주민들은 이 시기 이전까지 포유류의 젖이나 소의 고기를 소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고 있는 대목(31쪽)이라든가, "1847년: "온전한, 건전한, 신선한, 활기찬" 등의 뜻을 가진 라틴어 "베제투스(vegetus)"에서 "채식주의자(vegetarian)"라는 단어가 영국 람스게이트에서 만들어졌다."(45쪽)는 사실 등 매우 흥미로운 정보들이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어 이 책을 읽는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누락과 배제의 역사는 어떤 것을 더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로 삼을지와 어떤 것을 덜 중요하고 부차적인 문제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 그들이 공적영역에서 한 일들이 운동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혹은 그렇다고 주장되기 때문에, 사적 영역에서의 폭력 행위들은 말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 된다. 잘못에 대한 책임 소재는 역전된다. 동물 운동을 '상처 입히는' 사람은 운동 내 여성들을 강간하고 성적으로 학대하고 괴롭힌 남성이 아니라, 성착취 생존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여성이 된다.(80쪽)

위의 인용문의 상황은 2020년대의 한국에서도 그리 낯선 풍경이 아니다. 실제로 백인 남성 중심의 동물권 운동 진영에서 일어났던 '미투(Me Too)' 사건에서 피해여성을 이기적인 여성, 진보적인 조직을 해하려는 적으로 매도했던 상황을 그리고 있는 이 책의 1장의 서술은 한국에서 지난 몇 년 간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떠올리게 하며 짙은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

3 '인류세'와 인간에 대해 질문하기

> **1938년** 버지니아 울프의 반전 에세이 『3기니(Three Guineas)』가 출간되었다. 이 글에서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사 이래 여성의 소총에 맞고 쓰러진 사람은 거의 없고 절대 다수의 날짐승과 들짐승을 쏘아 죽인 것은 저희 같은 여자들이 아니라 귀하 같은 남자분들이잖습니까."(79쪽)

위의 인용문은 이 책이 수록하고 있는 타임라인에 1938년의 중요한 일로 선별되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위의 내용은 오늘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인류세'라는 개념어에 대해 『에코페미니즘』이 제기하는 날카로운 질문과도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이 책에 따르면, “인류세는 지구 물질에 대한 인간의 파괴가 우리 시대를 정의하는 특징적 요소가 된 새로운 시기를 가리키는”(68쪽) 용어로 오늘날 빈번히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명명법은 모든 인간이 지구의 자원 추출권한을 갖는 것도 아니고, 환경위기에 동등하게 해악을 끼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기만적인 표현이다. 이에 따라 “누가 안트로포스(anthropos)라는 범주에 포함되고 누가 그 범주에서 제외되는지를 명확히 식별하고, 책임 있는 특정 집단들의 파괴성에 윤리적으로 저항하는 것”(68-69쪽)이 에코페미니즘의 중요한 기획임을 이 책을 엮은 캐럴 J. 애덤스와 로리 그루언은 1장에서부터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인간’으로 통칭되는 이들의 범주와 ‘인간’ 가운데 권한과 특혜를 독점해온 이들에 대한 예리한 질문을 던지는 이와 같은 관점은, 이 책이 20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패티 니만의 글을 독해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에코페미니즘적 독법으로서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패티 니만은 「이분법을 넘어서: ‘they/them’ 대명사의 상호종적 옹호」(2020)라는 글을 통해 비인간동물을 사물화·대상화시키는 ‘it/its’ 대신에 ‘they/them’ 대명사가 표준이 된다면 인간과 비인간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661쪽) 이 글에서 패티 니만은 임신한 사람들에게 ‘그것(it)은 남자애인가요 여자애인가요?’라고 묻는 질문에서 ‘그것’의 성질(it-ness)이 확연하게 드러나며, 이는 출생 전 단계의 배아/태아를 ‘그’ 혹은 ‘그녀’라는 대명사로 호명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으로 인식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사례로 들고 있다. 비인간 동물을 ‘그것(it)’으로 호명함으로써 사물화하는 대신 ‘they’를 활용하는 것을 독려하는 입장이 함축하는 인간/비인간의 이분법적 경계를 허물어내려는 시도는 물론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패티 니만의 글에서 든 예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며 여성의 임신중지권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이들의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을 갖는다.[4] 배아 또는 태아를 인격화하는 것으로 “이익을 얻”는 “인간”에는 위의 여성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4 ANT(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의 경우 비인간 존재인 태아에 대해 인간 여성과 동일한 행위성을 갖는 것으로 설명함에 따라, 태아 수술의 상황에서 태아가 능동적 행위성을 부여받고 오히려 임신한 여성이 비가시화 되기도 하는 현상에 대한 모니카 캐스퍼의 설명을 소개한 임소연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임소연, 「신유물론과 페미니즘, 그리고 과학기술학: 접점과 접점의 접점에서」, 『문화과학』 107호, 2021, 130쪽 참조.

4 유비의 오류를 넘어 연대를 확장하는 교차성

이 글의 2장과 3장에서 상술하였던 내용들, 이를테면 주류 역사에 포함되지 못한 이들의 역사를 작성하는 작업과 인간 보편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작업만큼이나 에코페미니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서구 철학 전통의 가치이원론의 위계질서 자체를 해체하는 일이다. 캐런 워렌은 문화/자연, 남자/여자, 정신/몸, 이성/감정, 인간/비인간 등의 서구 철학 전통의 가치 이원론을 "이접적 짝패들(disjunctive pairs)"(24쪽)로 명명했고, 이 책은 "에코페미니즘 철학의 핵심은 이원론적이고 위계적인 개념틀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저항"(25쪽)이라고 명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5] 여성과 자연, 비인간동물을 연결하며 이들을 열등한 존재로 깎아내려온 가부장제의 작동 방식은 배타적이며 허구적인 이분법을 유지함으로써 "한쪽에 힘을 실어 주고 다른 한쪽을 지배"하는 억압의 정치를 영속화한다.(26쪽) 이에 "에코페미니스트들은 권력의 교차적 구조가 '여성'과 '동물'로 여겨지는 이들의 '타자화'를 강화하며 이러한 타자화가 환경파괴에 일조한다는 사실"(15쪽)에 주목하고 각 사안을 서로 분리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됨을 역설할 뿐만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개별 억압들의 저항을 실천함에 있어서 교차성에 기반한 연대의 상상력이 긴요함을 주장한다.

실제로 이 책에서는 교차하는 억압의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이접적 짝패들"에 균열을 내며 연대를 확장해나가는 장면들을 다채롭게 제시한다. 본서의 14장에서 육식과 이성애로 특징지어지는 "헤게모

5 이항대립적 구도에 대한 에코페미니즘의 비판은 때때로 그것에 대한 승인으로 오해받기도 했다. 캐럴 J. 애덤스와 로리 그루언은 "여성과 자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이러한 연관성이 지배를 정당화하는 방식들을 비판적으로 분석"(26쪽)했던 초기의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시도가 본질주의적이며 가치이원론을 승인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오히려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가치절하된 이들을 격상시키는 것이 이원론을 영속화한다는 생각은 이원론적 사고가 우리의 상상력을 오염시키는 방식"이라는 것이다.(26쪽) 오히려 에코페미니즘은 "비장애주의(ableism), 이성애, 정착민 식민주의, 백인성" 등을 가능하게 하고 물화하는 가치의 위계가 근본적으로 인간중심주의적인 것임을 폭로하면서(29쪽) 이러한 위계질서에 균열을 내고자 하는 변혁적 실천의 담론임에도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오독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니적 남성성의 반생태주의적 토대"(463쪽)를 폭로하면서 생태주의적 남성성을 재정의·재사유함으로써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 대안적인 젠더와 특히 생태남성성을 상상"(460쪽)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그레타 가드의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20장 「경계를 전복하기」에서 리아 커츠가 소개하고 있는 '퀴어 키친 브리게이드' 등의 사례 역시 큰 울림을 준다. 2017년 허리케인 마리아가 푸에르토리코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자, 뉴욕에 거주하던 퀴어 푸에르토리코인들[6]은 씨앗은행을 조직하고 인근 농장에서 기부 받은 농산물로 조달해 식량 구호품을 보냈다. 2018년 채식주의자였던 크루스와 몬테스 데 오카를 중심으로 운영된 또 다른 초국가적 브리게이드는 비건 식사를 제공하고 퀴어 통조림을 제조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식량주권을 주요한 공통분모로 하는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을 향한 투쟁"이라는 점을 공통분모로 삼아 "탈식민화와 트랜스 해방을 위한 운동"을 비거니즘의 실천 속에서 연결해내는 상상력을 현실화하였다.

한편, 이 책의 4장에서 샤마라 샨투 라일리는 「생태학도 흑인 여성의 문제다」라는 글을 통해 유색인 페미니스트들의 생태주의적 담론 및 실천의 교차적 의의에 대해 아프리카중심적 에코우머니즘의 관점에서 소개한다.(658쪽) 미국에서 가장 큰 유해폐기물처리장이 위치한 이른바 "암 골목(Cancer Alley)"으로 불리는 앨러배마주의 섬터카운티 지역은 거주민의 대부분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며, 미국 전체 인구와 비교할 때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암, 선천성 결함, 납 중독 비율이 더 높은 이유는 이들이 거주하는 환경이 유독성 폐기물에 빈번히 노출되어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환경인종주의의 문제가 백인우월주의 및 계급주의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폭로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실제로 당면한 어려움들 중 많은 사안들이 교차적 억압 구조에 의한 것이면서 동시에 여전히 인종주의의 측면이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은 경청할 만한 질문을 제기한다.[7]

---

6 '퀴어 키친 브리게이드'의 창립 멤버들은 푸에르토리코인들로, "푸에르토리코인을 가리키는 타이노족 단어 보리꾸아와 퀴어성을 결합시킨 보리퀴어로 정체화하는 이들이었다."(655쪽)

7 *Gyn/Ecology*를 저술한 메리 데일리(Mary Daly)는 여성들로 하여금 자연과 동일시하면서 남성들과 분리된 삶을 살아갈 것을 제안했는데, 젠더에 큰 비중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여타의 교차하는 억압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미흡한 본질주의적 접근은 장애인이나

인간과 비인간의 이분법적 경계를 해체하려는 에코페미니즘의 목표가 아직 '인간'의 영역에 충분히 포함되어 '인간'으로서의 온당한 지위를 영위해보지 못한 집단에게 허황된 구호로 인식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교차성 개념이 서로 다른 억압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의 연대를 가능케 하는 매우 유용한 이론적 도구임에 분명하지만, 여성이나 장애인, 흑인 등 피억압 계층의 경우 '짐승'과 같이 여겨지고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받아 왔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비인간동물에 관한 논의를 다른 변혁운동에 확장 적용하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섬세함을 요청한다.[8] 여성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오랫동안 억압과 고통 속에 놓여 있었기에 종차별주의적 사회에서 동물이 겪는 고통을 남성에 비해 더 잘 느끼고 연민을 성취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피억압계층 간의 상동성을 통해 연대를 확장해나갈 수 있는 훌륭한 인식론적 방법론이 된다. 그러나 유사성을 강조하는 방식은 종종 유비의 오류를 야기하게 되고, 이 책은 곳곳에서 이러한 유비가 자칫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 책의 7장에서 수나우라 테일러는 타자의 관점에서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윤리적인 태도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윤리는 동물 해방 뿐 아니라 장애 해방을 위해서도 요청된다고 지적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때 수나우라 테일러 역시 "나는 여기서 동물과 장애인을 비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둔다."(264쪽)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리아 커츠 역시 20장에서 어슐러 K.르귄(Ursula K. Le Guin)의 글을 분석하면서 "동료 생명체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생명체들 간의 혹은 우리와 그들 간의 유의미한 차이(와 유사성)

유대인 혹은 유색인종 등의 특정 집단에 속한 여성들에게는 적용되기 어렵다. "이 여성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여러 주의들ism과 맞서 싸우기 위해 (남성들의 성차별주의에 저항하는 동시에) 남성들과 연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 책의 4장은 분석한다.(186-187쪽)

8 이와 관련해서는 수나우라 테일러가 "비인간화된 사람들(장애인들을 포함해)에게는 동물화에 맞서면서 자신들이 인간임을 주장해야 하는 절박한 욕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인간의 동물화라는 잔인한 현실과 동물 멸시에 맞설 필요성"을 양립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동물성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던 주장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이는 장애해방과 동물 해방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기에 비장애중심주의와 인간중심주의의 억압을 교차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맞설 필요가 있다는 견해로 이어진다. 수나우라 테일러, 이마즈 유리 역, 『짐을 끄는 짐승들』, 오월의봄, 2020, 64-65쪽 참조.

을 납작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함을 강조했다.(662쪽) 여기서 그는 “트랜스 퀴어 상호종적 에코페미니즘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운동들 사이의 “공통 관심사”를 덧붙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에코페미니즘의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지배들을 가로지르는 연결을 추구하는 동시에 “통합적인 서발턴적 입장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애리얼 살레의 견해를 인용한다.(663쪽) 결국 에코페미니즘이 강조하는 교차성의 이상은, 상동성을 납작하고 거칠게 적용함으로써 재차 폭력을 생산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유의하면서 서로 다른 이들의 고통과 연결되고 연대의 상상력을 확장해나가는 미시적 실천의 수행에 의해 가까스로 확보되는 것이다.

5 실천적 담론으로서의 에코페미니즘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실제 삶에서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구체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데에 좋은 나침반이 되어 줄 만한 논의들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는 점이다. 700쪽 가까이 되는 방대한 분량에 값하듯 이 책은 생태주의와 여성주의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생산될 수 있는 오색찬란한 논의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특히 채식주의/비거니즘에 관해 이 책은 비건 보편주의와 맥락주의적 비거니즘 간에 진행되었던 치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쳐 보인다. 이 책이 담아내고 있는 방대한 비거니즘 논의들은 이 글의 도입부에서 언급하기도 했던 “페미니스트는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할까?”라는 가장 기초적인 차원의 질문에 대해 나름대로의 답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이 책의 12장에서 리처드 트와인은 발플럼우드, 딘 커틴, 마티 킬 등의 견해를 소개하며 에코페미니즘과 비거니즘의 문제를 다룬다. 그에 따르면, 헌신적인 비건임에도 마티 킬이 비건 보편주의를 옹호하지 않았던 것은 보편주의를 남성주의적인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킬은 자신의 저서 『자연 윤리』에서 비거니즘에 대한 옹호가 에코페미니즘의 맥락적 접근법과 완벽히 일치하며, 다른 인간을 죽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합리적 논변을 원용하지 않는 것처럼 비거니즘에 대해서도 별도의 합리적 논변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한편, 발 플럼우드는 “동물 살해 자체가 아니라 공장

식 축산업에 반대"(419쪽)하며 "준채식주의자(semi-vegetarian)"의 입장을 취하였다.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는 입장은 딘 커틴의 "맥락적 도덕 채식주의(contexual moral vegetarianism)"으로, "보편적·의무론적·권리기반적 채식주의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맥락적 사유를 중시하는 에코페미니즘의 돌봄 윤리에 기반한 채식주의"를 의미한다.[9]

결국 "페미니스트는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할까?"라는 질문은 "당신은 누군가와 연대하는 동시에 그 누군가를 먹을 수 있는가?"(662쪽)라는 질문으로 몸을 바꾸어 이 책을 읽는 독자 앞에 선다.[10] 교차성의 역량이란, 언제든 나 역시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내가 가진 다양한 속성들 가운데 어떤 것은 피해자의 것이라면 그 중 어떤 것은 동시에 가해자의 얼굴을 갖고 있을 수 있음을 서늘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계급적으로 비거니즘의 생활양식에 접근이 어려운 이들에 대해 비거니즘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규칙-기반적 보편주의보다는 "맥락적 윤리에 의거해" "가능한 한" 비거니즘의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지향하는 '겸손한 점근선의 윤리'"로 나아가는 것이 요청된다는 백종륜의 지적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11]

이 책이 소개하고 있는 비거니즘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 가운데, 나에게 가장 깊은 울림을 주었던 글은 9장에 위치한 캐런 S. 에머먼의 「동물 상호 간의 도덕적 갈등과 도덕적 보상」이었다. 이 글은 "인간의 이익과 비인간 동물의 이익이 충돌하는 딜레마"(321쪽)에 해당하는 에머먼의 실제 경험을 다루고 있다. 2006년 에머먼은 임신 33주차에 아들을 조산하였고, 모유수유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게 되었는데, 비건인 자신과 같이 아이도 비건으로 양육할 계획을 갖고 있던 그는 콩으로 만든 분유를 먹이고자 했다. 그러나 콩으로 만든 분유 가운데 비타민 D3가 함유된 분유는 양의 라놀린에서 추출한 제품밖에 없었기에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비거니즘의 신념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어쩔 수

9 백종륜, 앞의 글, 68쪽 참조.

10 존 쿳시의 소설 『동물로 산다는 것』(1999) 속 인물 엘리자베스 코스텔로는 "이 모든 사람이 엄청난 규모의 범죄 공모자"(223-224쪽)이며, 이러한 "미친" 현실 속에서 "모두 타협하며 살아가는데, 왜 너는 그렇게 못하니. **왜 너만 못해?**"(224쪽)라고 절규한다.

11 백종륜, 앞의 글, 55-76쪽 참조.

없이 그 제품을 선택했던 것이다. “양의 라놀린에서 유래한 D3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아들에게 아무것도 먹이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그가 굶어 죽게 내버려두는 일이 선택지가 될 수 없음”(332-333쪽)은 분명했지만, 그럼에도 이 상황에서 에머먼은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는다. 에머먼은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에서 죄책감과 고통에 침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의 생명이 다른 존재의 안녕을 희생함으로써 유지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지하게 이 상황에 접근해야 한다”(340쪽)고 판단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글에서 에머먼은 질문을 바꾸어 볼 것을 제안한다. 이를테면 “D3의 비건 원료를 개발하는 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던 것일까? 혹시 이는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양을 이용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식으로 오히려 구조에 대한 질문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머먼의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HLH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중이던 내 다섯 살짜리 딸[12]을 위해 음식을 만들며 수나우라 테일러의 『짐을 끄는 짐승들』을 읽었던 2020년의 기억이 떠올랐다. 박사과정 중 휴학계를 내고 아픈 딸의 전업 돌봄자로 몇 달째 지내던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Zoom으로 동료 연구자들과 장애학 세미나를 했다. 나는 장애해방과 동물해방의 교차적 억압에 대한 발제문을 쓰면서, 매일 매 끼마다 시뻘건 피를 손에 묻히며 ‘소고기’ 요리를 만들었다. 호중구 수치가 0에 가깝게 떨어져서 수혈을 받아야 하는 딸에게 ‘소고기’를 많이 먹여야 한다는 의사의 조언은 엄마로서 무시하기 어려웠다. “머리로 아는 것, 옳다고 믿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고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강이 흐른다. 깊고 검푸른 어둠 같은 강이다.” 내가 책으로 읽고, 동료 연구자들과 지적인 대화를 주고받고, 논문에 인용도 하는 책의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괴로워서 그 무렵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놓았다.

『에코페미니즘: 인간, 동물, 지구와 교차하는 페미니즘적 시선들』이 강조하

12 이 글을 빌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강인한 나의 딸에게 무한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고 있는 것처럼, “에코페미니즘은 여성혐오, 이성애규범성, 백인우월주의, 식민주의, 비장애주의가 파괴적인 인간중심주의에 영향을 받는 방식과 인간중심주의를 지탱하는 다양한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이 힘들의 교차 방식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덜 폭력적이고 더 정의로운 실천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15쪽)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실천적 담론이다. 요컨대 교차성, 실천적 담론, 정동, 맥락주의 등 오늘날의 에코페미니즘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적 가치들은 지적인 첨단을 달리는 최신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지금-여기’의 오늘을 살아가는 다양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저마다의 삶 속에서 치열하고 고통스럽게 제기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의 다른 모습일 것이다.

> 무엇이 가려지는가?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가? 누가 혹은 무엇이 배제되는가? 누가 보일 수 있는가? 누가 말하는가? 누가 누구를 대신해 말하는가? 사태를 새롭게 보려면 어떤 작업이 필요한가? 누가 듣는가? 다른 존재를 배제하지 않고 어떻게 누군가에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가? 이러한 종류의 질문들은 언제나 에코페미니즘적 사고과정의 일부이며, 우리의 헌신에 대해 숙고할 때 반복해서 제기된다.(484쪽)

위의 인용문에 나열된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자기성찰적”(484쪽) 태도로 각자의 삶을 “가능한 한” “덜 폭력적”인 매무새로 쇄신해나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책하는 데에 에너지를 전소하기 보다는, 구조적 문제들을 규명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전치해나가는 것.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어둡고 검푸른 강’을 헤엄쳐 건널 수 있을 것이다.